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 결과요지

2020. 1. 7.

운영지원단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 개요 ◆

1. 일시 : 2020. 1. 2. 15:00~19:35

2. 장소 : 대법원 409호 회의실

3.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순석, 박균성, 오승이, 윤준, 이광만, 이미경, 이찬희, 최한돈(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한일(간사), 고원혁, 서현웅(이상 서기)

4. 배석자

○ 서경환(법관인사 분과위원회)

○ 홍동기(운영지원단장), 김영훈, 강지웅, 한종환, 이인수, 유제민, 배진호(이상 운영지원단원)

5. 의사개요

가. 2020년 대법원 예산 편성 보고

○ 기획조정실장, 2020년 대법원 예산 편성 결과를 간략히 보고함

나.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1) 한종환 분과위원회 간사 기초발제



-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에 관하여 1.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  
2. (설치 긍정 시) 필요한 사무공간 마련 방안과 그에 따른 울산원외재판부 시행 시기를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 2) 토론

- 위원들은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발제자,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질의) 원외재판부 설치 시 단점으로 지적되는 양형·법령 해석 통일 기능 저해 부분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지 궁금함
  - (발제자) 이미 양형기준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원외재판부와 관할 고등법원의 주기적인 모임을 실시하는 등의 보완을 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음
  - (의장) 양형통일 및 법령해석에 대해 부산고등법원과 원외재판부가 계속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임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과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의견)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에는 찬성하나,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 명목으로 의정부를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게 되는 상황에서 항소심을 지방법원 항소부 및 고등법원에서 2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듦. 항소심 기능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함
  - (답변) 항소심 구조 개편 연구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하나, 상고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항소심 구조까지 논의하기는 힘든 실정임. 심급구조를 1심-2심-3심으로 단순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언젠가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임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질의와 이에 대한 간사의 답변이 있었음
  - (질의) 옥상에 1개층이 아닌 2개층 이상을 증축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또한 울산지방법원 청사를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청사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의아함
  - (답변) 기술적으로 1개 층만 증축 가능함. 울산법원 청사를 개원한 지 5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개원 이후 울산가정법원이 청사 내에 설치되면서 공간이 협소하게 된 사정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질의와 이에 대한 간사의 답변이 있었음
  - (질의)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청사 구조에 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 (답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서 법원청사 설계지침 변경 검토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합리적인 사무실 배치를 통한 법관 및 법원 직원의 공간 부족 해결 방안임

### 3) 결정사항

- 울산지역 주민의 사법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사무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므로, 위 문제가 실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 법원공용차량 신규배정 및 업무용차량 교체 기준(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 1) 한중환 분과위원회 간사 기초발제

- 법원공용차량 현황 및 현행 기준을 소개하고, 분과위원회가 검토한 ‘업무용차량 신규배정 및 교체 기준표(안)’을 제시함

### 2) 토론

- 위원들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안에 동의하였음

### 3) 결정사항

- 업무용차량의 신규배정·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이 신설되어 차량이 필요한지 여부, 차량의 수리사용이 불가능한지 여부, 사고차량이나 노후차량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는지 여부, 특정 법원에 배정된 업무용차량의 평균운행거리와 평균운행횟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서 신규 배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교체 요청 대상 차량의 운행기간, 운행거리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음

## 라. 전용차량 개선방안

### 1) 법원행정처 담당자 기초보고

- 한중환 기획조정심의관, 전용차량 개선방안 논의의 필요성과 안건 부의 경과를 보고하고, 안건 회부 시 상정 가능한 구체적 논의사항과 향후 일정(안)을 제시함

### 2) 토론



○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법원장은 기관장이므로 전용차량이 필요할 수 있는데, 재판장의 경우에는 출퇴근에만 사용하므로 고등부장 모두에게 전용차량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실제로 고등부장 모두가 전용차량을 이용할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전용차량을 폐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
- 여론의 추이나 언론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전용차량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다만 폐지 시 보완조치로 직무성과금을 검토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적절하고, 교통비, 직급보조비, 명예퇴직수당 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폐지 시 보완조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직무성과금 등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전용차량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 제10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점, 검사는 정년의 제한만 받는데 비하여 법관은 정년은 물론 임기의 제한도 받으므로 명예퇴직수당도 거의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 기타 폐지 시 보완책에 대해서도 예산당국과 협의가 잘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어 전용차량 폐지를 우려하는 고등부장들이 있음
- 이 문제가 국회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으며, 전용차량 유지 쪽으로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임.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몰라도, 전용차량을 유지할 경우 법원은 검찰만큼 개혁적이지 못하다는 외부의 비판은 물론 내부의 문제제기가 심해질 우려가 있음



- 고등부장이라고 모두 전용차량 유지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과위원회에 회부를 하되 고등부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점 또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음
- 전용차량 문제는, 사회변화에 비추어 고등부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전용차량이 과연 필요한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함. 다만 폐지되더라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처럼 재판이 아닌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고등부장에 업무용차량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용차량 폐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함

### 3) 결정사항

- 전용차량 개선방안에 관한 안건을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 연구·검토를 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에 대한 전용차량 배정기준 유지 여부
  - ② 위 전용차량 배정기준의 개선방안(구체적인 전용차량 배정기준안, 전용차량 배정기준 개선안 시행시기)
  - ③ 위 전용차량 배정기준 개선에 따른 보완조치
- 연구·검토 시한은 2020년 2월 말까지로 하고, 2020년 3월에 예정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4차 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함

마.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의견’ 보고 및 논의

#### 1) 이한일 간사 보고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전국공무원노



동조합 법원본부 의견'을 보고함

## 2) 결정사항

- 분과위원회 설치 목적과 회부한 안건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종전 결정사항(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
- 그 외 분과위원회 구성 방법에 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공모나 추천 결과를 확인한 뒤 분과위원회 설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음

※ 16:20경 정회 (김순석, 박균성, 이미경, 이찬희 위원 이석)

※ 16:30경 속개

바. 2020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6개 보직인사안에 관한 논의(소관: 법관인사분과위원회)

※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 이인수, 배진호 인사심의관, 서현웅 사무관(서기)을 제외한 배석자는 퇴장

### 1) 서경환 분과위원장 기초발제

- 현장 배부한 별도 자료에 의하여 2020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6개 보직 인사안에 관한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함
  - 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 현재 파견연구관 선발, ③ 대법원 판사 연구관 선발, ④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⑤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⑥ 고법판사 신규 보임

### 2) 논의사항

- 위 6개 보직인사안별로 각각의 선정기준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보임대상자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음(구체적 보임대상자에 대한 자문의견 논의 시에는 인사상 비밀 유지 등을 위하여 실명을 배제하고 익명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사.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4차 회의(정기회의)**

- 일시: 2020. 3. 12.(목) 10:00
- 장소: 대법원

**아.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자문회의는 제3차 회의 회의록 작성시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의견’에 대한 위원들의 토론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의결함 <끝>